

2017 인천광역시 국민디자인단

경인선 스토리텔링 발굴



2017 인천광역시 국민디자인단

지금? 몇시예요!

오랫동안 함께 한
인천시민의 경인선 다시보기

2017 인천광역시 국민디자인단

지금 몇시예요? 그 활동의 레일

STEP ONE

연료넣기

국민디자인단
활동의 내역

STEP TWO

출발하기

경인선의
역사와 자원

STEP THREE

문제도출역
도착

경인선의
Buglist 도출

STEP FOUR

이야기찾기역
도착

경인선의
스토리텔링 개발

STEP FIVE

시민행복역
도착

2017 인천
국민디자인단의
디자인



STEP ONE

연료넣기

2017 인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우리의 프로젝트 계획

경인선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한국 최초의 철도



그러나

인천의 역사 · 전통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는 시민은 **1.44%** 에 불과

그렇게 외면당하기엔 경인선은 인천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던 소중한 매체

우리의 목표는!

경인축 문화역사 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을 스토리텔링하다.

어떻게?,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간 거버넌스 구축

1899년 우리나라
최초철도 개통,
인천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장소성 부여

경인선의 역사적 가치부여로
문화, 관광 자원화

네트워크 조성
역사 교육
문화 체험
편의공간 개발

정책자문단

경인선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한
정치적 대안 모색

서비스디자이너,
관련 부서 공무원, 관련 센터장

김성희, 유동현, [빈남옥, 권옥란]
공무원

서비스 탐험단

경인선을 탐험하여
이해관계자의
버그리스트 및 스토리 발굴

서비스디자이너,
근로자, 시민, 인근대학생

박은혜, 오동원, 황인근,
정재욱, [빈남옥, 권옥란]

서비스 실행단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경인선 스토리텔링
서비스 공동 창작

서비스디자이너,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전경희, 이상구, 임미정, 장기원
빈남옥, 권옥란, 김성환

2017 인천 국민디자인단,
시민 모두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우리 국민디자인단의 끊임없는 철길따라 탐험길..



탐험단 맥락적 인터뷰

2017. 08. 25

굿모닝 인천 유동현 편집장님과 함께 맥락적 인터뷰 진행
경인선 및 동인천역에 관련한 다양한 추억을 탐구



1차 워크샵

2017. 09. 05

국민디자인 대학생 탐험단의 오리엔테이션과 서비스 디자인 기법 회의



탐험단 현장탐험

2017. 09. 12 - 2017. 09. 19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현장탐험을 진행
서비스 사파리, 페르소나, 인터뷰 등 서비스 디자인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지 수요자 탐구



국민디자인단 위촉식

2017. 07. 11

인천 행정부시장님과 함께 위촉식 진행 인천 국민디자인단이 구성됨



탐험단 맥락적 인터뷰

2017. 09. 01

빈남옥 해설사님과 함께 인천도호부청사에서 맥락적 인터뷰 진행
인천과 동인천에 관련한 다양한 역사를 탐구



맥락적 인터뷰 & 사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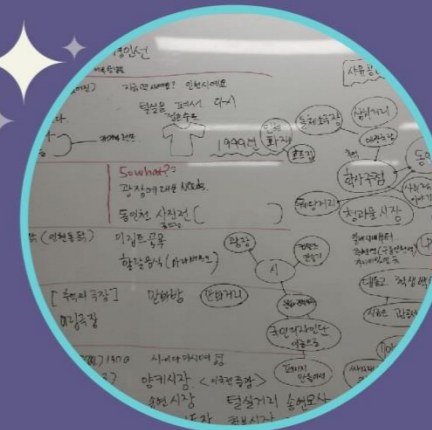
2017. 09. 18

권옥란 해설사님과 함께 인천~동인천역 일대를 걸으며 거리에 담긴 다양한 역사 및 이야기들을 교류

2차 워크샵

2017. 09. 28

탐험했던 사항들을 모아놓고 다같이 회의를 통해 대안 모색



그래서 경인선은?

경인선 현황

인천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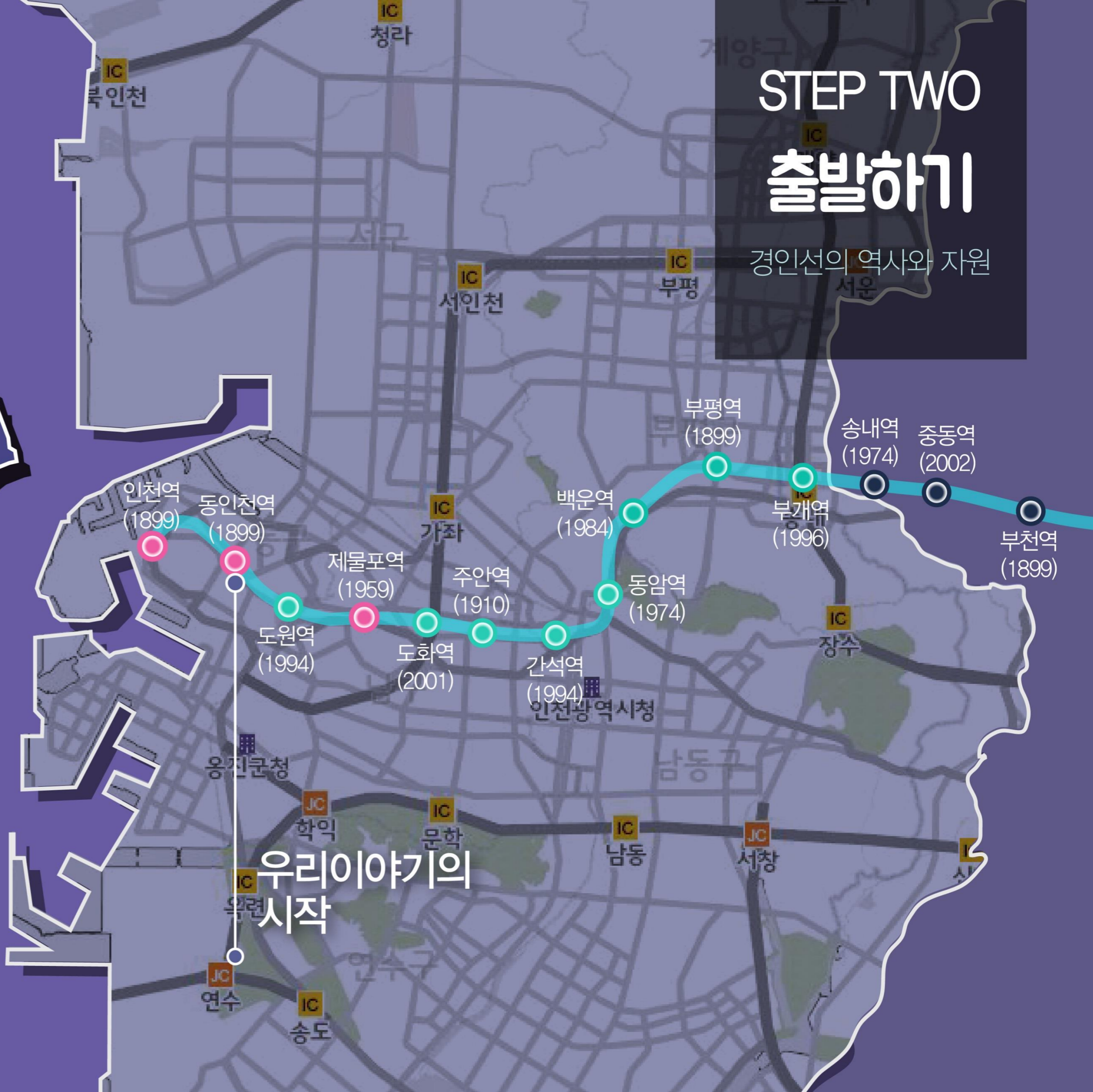
경인선 역사: 11개소

- 100년 이상 : 인천역,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부천역
- 50년 이상 : 제물포역
- 40년 이상 : 동암역, 송내역
- 30년 이상 : 백운역
- 20년 이상 : 도원역, 간석역, 부개역
- 10년 이상 : 도화역, 중동역

STEP TWO

출발하기

경인선의 역사와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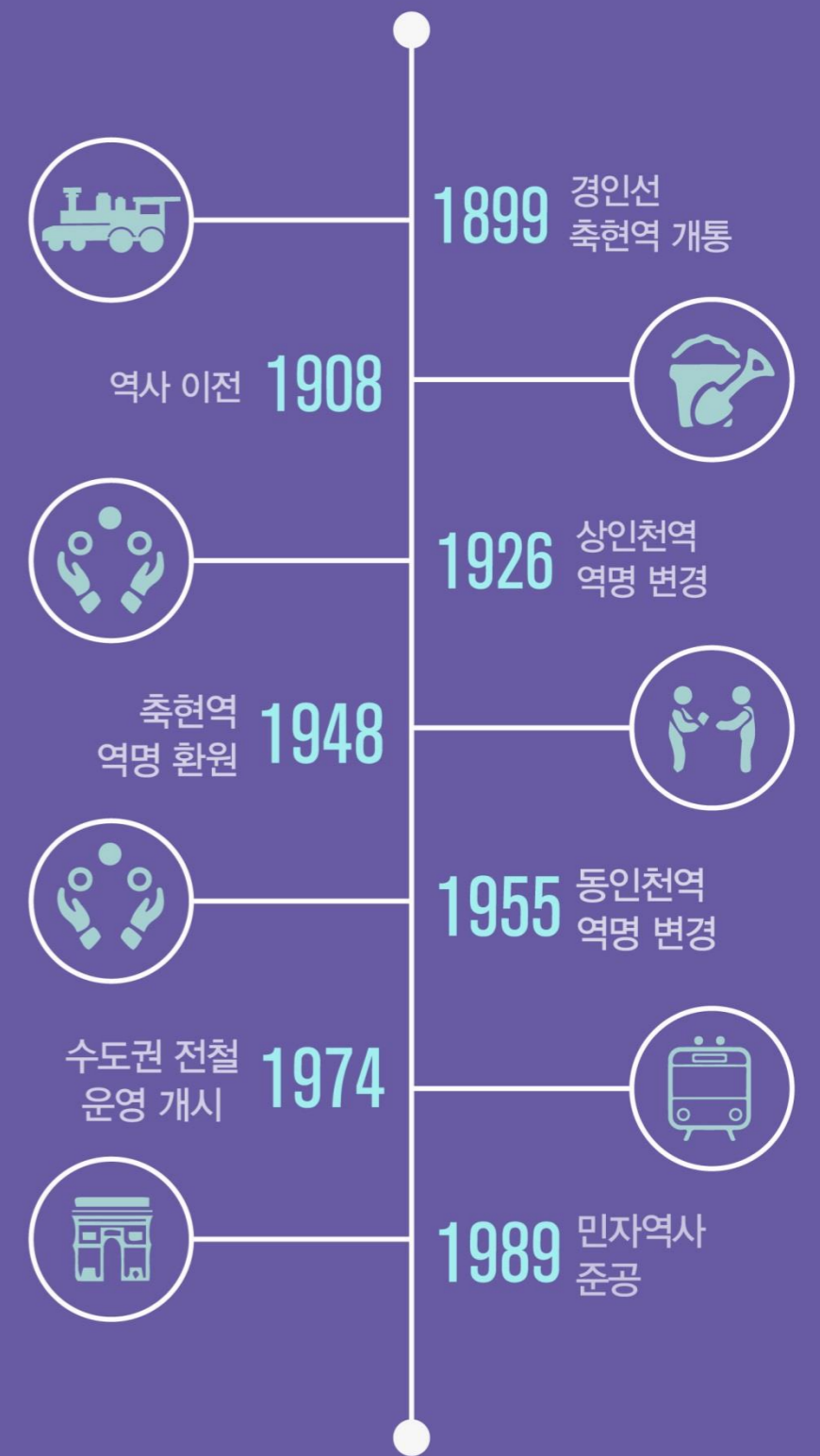


동인천역 주변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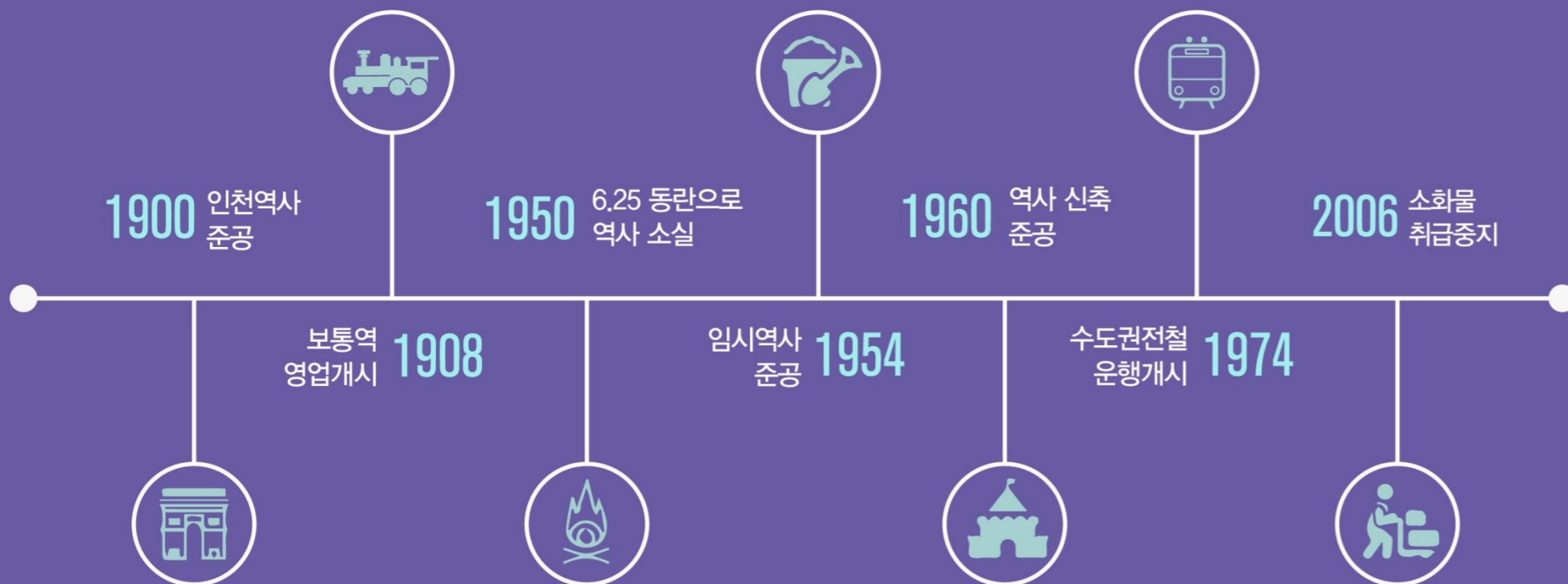
1899년에 개통한 동인천역은 축현역, 상인천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고 1974년 수도권 전철 또한 운영개시했다.



인천역 주변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ISTORY

인천역은 개항부터 함께 해온 역으로 1900년 역사준공과 함께 개통하였으며 6.25 동란으로 역사가 소실되었다가 1960년 다시 준공되는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곳곳히 버텼다.



STEP THREE

문제도출역 도착

경인선의 Buglist 도출

동인천역은 관리소홀로 낙후된 환경과 옛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숨어있는 콘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보이는
안내사인물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역사문화자원



갑자기 보행로에 그물을 내놓고 정리하셔서 놀랐어요! 사유재산으로 보행로가 잠겨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보행에 위협적이에요
안전문제

관광객을 배려한
공공시설물



역에서 내리자마자 관광 안내소와 조형물이 있었어요. 방문객에게 친절한 것 같아요!

관리소홀이 심각한
공공시설물



노숙자도 많고 불법 주정차로 보행이 위험해요. 전반적으로 음산한 것 같아요.

시계탑 자리를 추억하는 조형물이 있지만 눈에 띄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안내사인물

추억없는 추억팔이?
역사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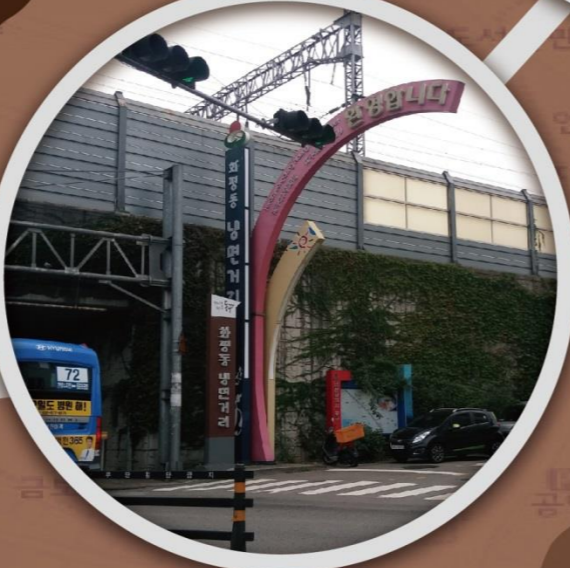
보기 편한 곳에 있어서 좋아요!

지하철 시설물 페인트 벗겨짐 등 관리소홀이 심각해요.



음산하고 위험해요.
안전문제

중복되어서 눈에 띄지 않아요!



인천역은 잘 조성되어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많지만 서로간 연결이 잘 안되어 있어서 아쉬워요.

경인선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페르소나를 도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Brown씨



“ 안내판이 없어서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할지.. ”

OCCUPATION | 31세 직장인
LOCATION | 심정동
FAMILY | 홀로 자취

SCENARIO

미국에 사는 주현씨는 휴리데이를 맞아 남편과 딸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헛갈리는 지명 탓에 시간을 지체 하곤 했다. 미리 인터넷으로 자세하게 알아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PROBLEMS

- 1) 정보전달에 혼란을 주는 지명
- 2) 관광객을 위한 충분한 정보 필요
- 3) 길을 찾기 위한 안내 시스템 부족

관광정보 서비스

명확한 정보체계

Way finding 조성

오화영 직장인



“ 위험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

OCCUPATION | 31세 직장인
LOCATION | 심정동
FAMILY | 홀로 자취

PROBLEMS

- 1) 정비되지 않은 시설
- 2) 어둡고 위험한 환경
- 3) 관리가 필요한 환경

기존 시설 정비

지속적인 관리

안전한 환경조성

이상민 할아버지



“ 지나다닐때 마다 왔다 갔다하기가 힘들어... ”

OCCUPATION | 78세 노인
LOCATION | 동인천 인근
FAMILY | 아내

SCENARIO

에서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이상민씨는 동인천이 정겹지만 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편의에 있는 은행에 가야할 때 사를 통해 지나다니고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최근 나와있는 동인천 역사가 북부를 가로지르고 문이다.

PROBLEMS

- 1)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로 인한 지역간 단절
- 2) 방치되어있는 리모델링 역사
- 3) 노인에게는 이용하기 너무 어려운 정비되지 않은 도로 환경

지역간 단절해소

역사의 활용

도로환경 개선

경인선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해봐요,

경인선톡크톡!

STEP FOUR

이야기찾기역 도착

경인선의
스토리텔링 개발

지상전철로 인한 교류단절

도로가 철길이 생기면서 남북으로 갈렸거든.
그때문에 인천의 교통시스템이 많이 왜곡되어있지.
이게 없으면 자유롭게 유통하고 지나다닐텐데
인천의 발전을 막고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전철에서 시작되는 동창들과의 통학길

주로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동창들이지, 대학을 서로 뿔
뿔이 흩어졌잖아. 서로 약속을 하는거야. 아침 8시 3통 2반에서
만나자. 3통 2반이 뭐냐면 앞에서 세번째 차량의 두번째 문.
8시에 동인천에서 타면 제물포, 주안에서 대강 그 시간을 기억
했다가 다들 그리로 들어오는거야. 그렇게 같이 통학하곤 했지.

인천역 생선아주머니들

지금 그런건 없어졌는데, 연안부두로 향을 옮기기
전에는 인천역 뒤에 생선직매장이 있었다고.
어선들이 들어와서 파는..그걸 옛날 함지에 담아서
서울 골목을 다니거나 좌판을 깔고 생선을 팔던 아
주머니들이 있었어. 다들 인천역에서 부터 타고 오
니까 생선냄새가 엄청났지. 그런 추억이 있어요.

광장 혹은 복합역사물의 활용 필요

옛날에는 광장이 만남의 장이었거든.
광장이 없어지고 생긴 복합역사의 활
용이 되지않고 있는 점이 아쉬운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던지 역할을 해야하
는데 그게 아쉽지.

철도를 활용한 문화공간의 부재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이 최초의 철도
라는 역사가 있으니까 철도 관련된
그런 재미있는 테마나 영상을 만들어도
의미있고 좋을 것 같아.

굿모닝인천 유동현 편집장님

경인선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해봐요,

경인선 **톡크톡!**

교회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천

저는 인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경인선에 대한 명확한 추억은 없지만 인천은 대학때 답사로 선교사들의 신앙생활의 흔적, 제암리 등을 다니면서 배우면서 인천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인천의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사 순례, 답사를 다니곤 했죠.

인천역 그리고 차이나타운

서울사람들이 인천역과 차이나타운 역이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구요. 그래서 넣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 카페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은 180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미리 해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워요. 지금은 서울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상전철로 인한 교류단절

철도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지상으로 되면서 분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구하고 동구가 철로로 단절되거든요. 지역간의 단절이 아쉬운 것 같아요.

비어있는 역사 활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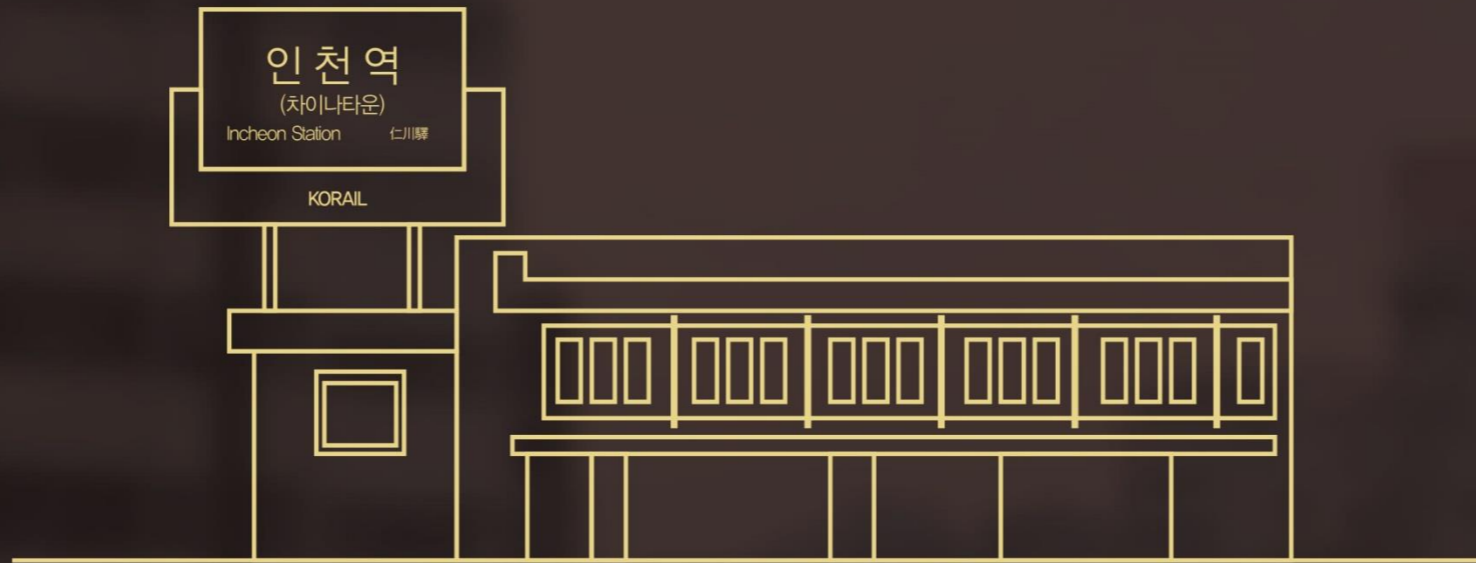
동인천역은 청라에서도 지하철이용하기 위해 많이 오는데 인천백화점 있던 자리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서 아쉬워요. 동인천 지하상가는 중국분들도 많이 와서 위치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생활의 장의 부재

지하철과 연계된 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동인천역이 특히 아쉬워요. 알뜰시장 설대는 좋은데 평상시의 광장이 관리가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문화 생활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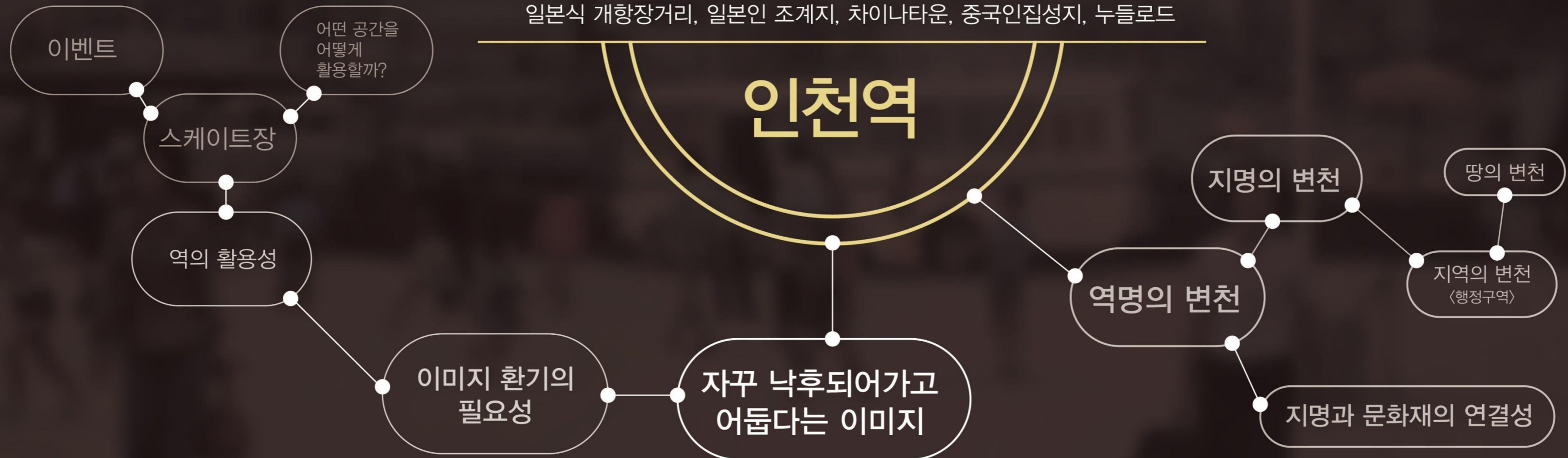
경인선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해봐요,

경인선톡크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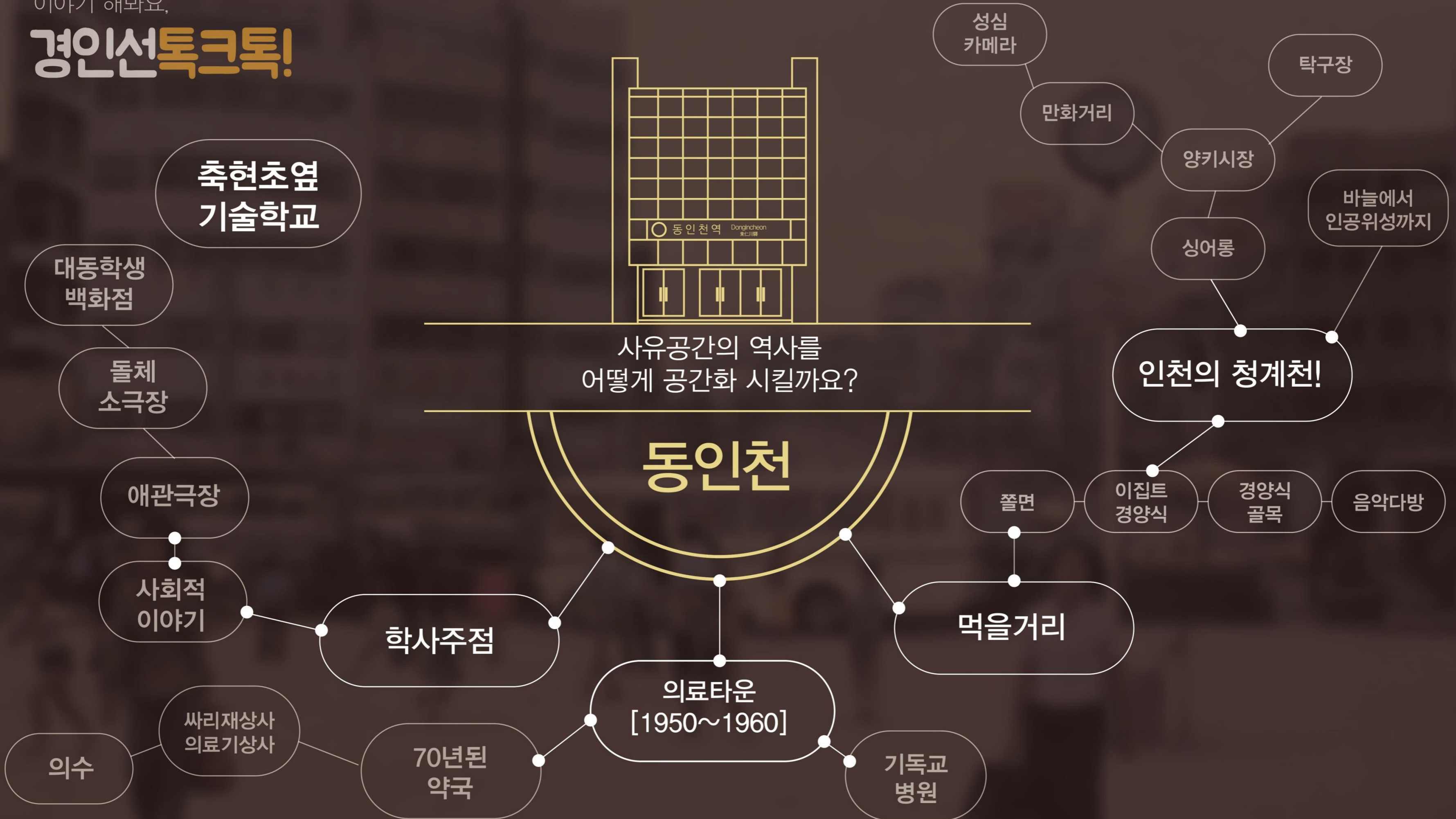
광장, 시장, 양귀시장, 만화가게, 학생문화회관 인근 축현초등학교,
닭구이의 추억, 전기구이 닭 전동[전화국], 최초의 호텔,
일본식 개항장거리, 일본인 조계지, 차이나타운, 중국인집성지, 누들로드

인천역



경인선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해봐요,

경인선톡크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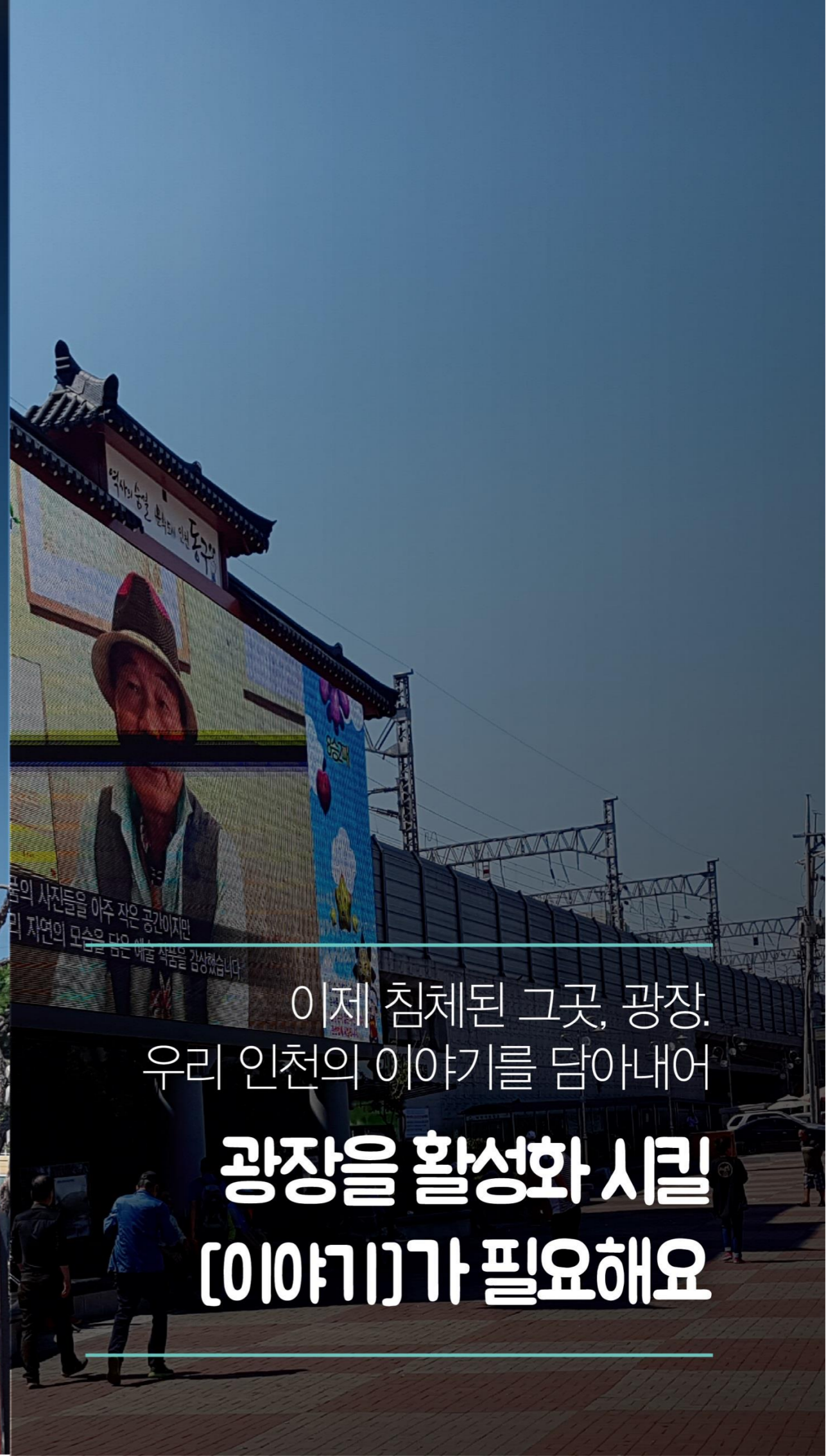




한때 추억의 장소들이 시간에 따라
노후화되며 사람들의 발이 떠났어요

**추억의 장소들의
발굴과 개선이 필요해요.**

아주아주 오래된 경인선 인근,
자원도 엄청 많지만
연결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관광자원의 연결이 필요해요



이제 침체된 그곳, 광장.
우리 인천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광장을 활성화 시킬
[이야기]가 필요해요**

STEP FIVE

시민행복역
도착

2017 인천
국민디자인단의
디자인

경인선, 인천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다.

정확한 시간개념도 시계도 필요없던 그 시절,
경인선의 존재는 인천사람들에게 기차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시계탑이 생겼습니다.

시계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경인선을 외면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맞시여요!

경인선 스토리텔링 관광루트개발

우리, 여섯시(視)에 만나요

경인선이 들려주고픈 여섯가지 이야기



한시,
청춘루트

Youth favorite, Theme

70년대말 그 청춘,
돌아오듯
다시 찾아보는
그 청춘루트



두시,
시장 안시장

Museum, Culture

먹거리와 볼거리
풍부한 전통시장,
그 안에서는
시장함도
뭏느끼겠죠?



세시,
최초먹방

Enjoy, Festive, Event

경인선에는
최초가 많습니다
짜장면, 쫄면,
냉면, 소성주...
최초를 맛보는
먹방 코스!



네시,
백범루트

Interest, Experience

동인천은 백범김구
선생님이 옥생활을
하셨던 역사깊은
공간이죠,
역사를 따라가봅시다.



다섯시,
드라마틱로드

Dramatic road

도깨비, 써니,
고양이를 부탁해 등
동인천, 경인선은
필름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주인공이 되어
드라마틱한 순간을
누리볼까요?



여섯시,
우리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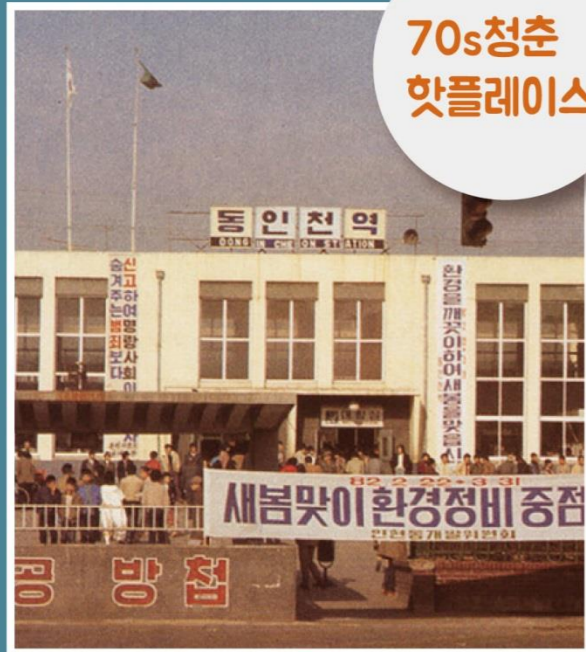
잊혀지고
외면받던
동인천 광장,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청춘 루트

70년대말 그 청춘, 돌아오듯 다시 찾아보는 그 청춘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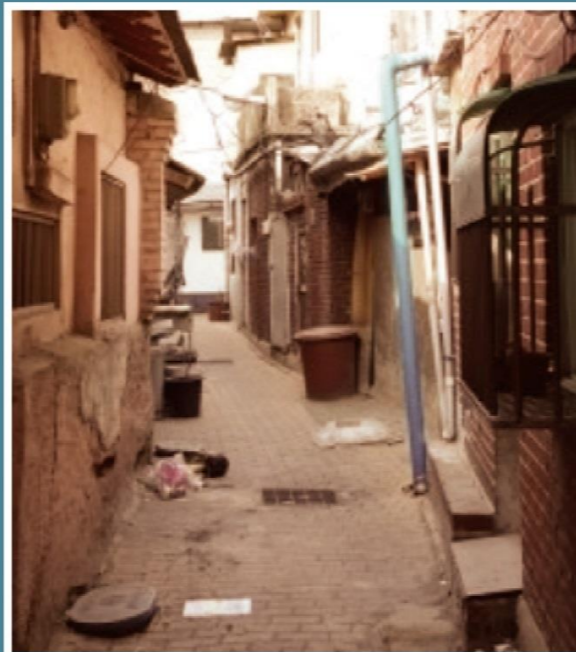
70s청춘
핫플레이스!



동인천 광장 출발



대한서림



칼골목

개항기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일본제분과 같은 근대식 제분공장이 인천에 세워지면서 밀가루가 주재료인 칼국수와 같은 면음식이 발달했습니다. 70, 80년대에는 홍콩 누아르 영화가 인기였고 칼골목에서 칼국수를 먹으며 봤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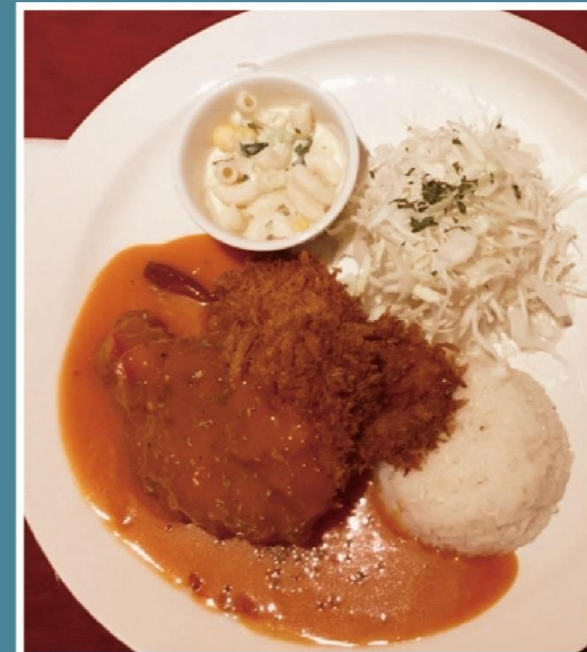
칼골목에서 뜨끈한 칼국수에 홍콩누아르 어떠신가요?



DJ음악다방(음악감상실)

경인전철이 개통되기 전인 1976년 현 동인천역 앞 옛 대한서림 건물은 당시 젊은이들이 즐겨찾던 명소로 일명 "별 건물" 로 불렸던 이곳은 1,2층은 제과점 + 3,4층은 다방 + 5층은 음악감상실 +6층은 빵공장이었습니다. 청춘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이곳.

그 시절 그 음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집트 빵집

과거 이집트 빵집으로 청춘들의 미팅 단골장소였던 이집트 빵집 지금은 이집트 경양식으로 이름과 종목을 바뀌었지만 그 추억은 함께 갑니다.

이곳에서, 그시절 미팅의 추억을 한입 느껴볼까요?



제물포 구락부

제물포구락부는 최초의 클럽으로서 근대 문화 교류의 현장입니다. 개항기 인천에 거주하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및 기타 외국인과 소수의 중국, 일본인들이 친목을 돕기위한 사교장으로, 현재는 역사 관광지로 지정되어 운영중입니다.

그시절, 외국인들의 사교공간 한번 느껴보실래요?



카페 바그다드



개코막걸리

2017 인천광역시 국민디자인단

경인선 스토리텔링 발굴



지금 몇시예요?

오랫동안 함께 한
인천시민의 경인선 다시보기

추억의 사진 공모전
10/9-10/20

주최 인천광역시

한시, 우리 경인선에 대해 이야기 해봐요,

경인선 **톡크톡!**

추억의 사진 공모전으로
동인천의 추억 발굴하고 공유하기.



추억의 사진 공모전

오랫동안 함께 한
인천시민의 경인선 다시보기
10/9-10/20

하루 동안 열지 않기 ■

여섯시, 우리 경인선 광장에서 모여요

동인천 광장, 예전에는 만남과 소통의 장소였지만
현재는 노숙자 문제, 지저분한 환경, 콘텐츠
부족 등 문제를 가지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방향성1. 문화예술공연장

노래,춤,마임 등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를 설치해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장으로 활용
야외공연은 인천시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복지관 등지의 소모임을 통해 평상시 갈고 닦은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방향성2. 벤치 공모전

광장의 축제나 행사, 이벤트 현장에 설치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디자인벤치' 디자인을 공모,
수상작품은 실물로 제작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향성3. 상징조형물

구동인천역의 시계탑처럼 도심상징광장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하고,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계획한다.

